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⑤ 2.③ 3.① 4.③ 5.⑤ 6.③ 7.⑤ 8.④ 9.④ 10.⑤
11.③ 12.③ 13.④ 14.① 15.⑤ 16.② 17.② 18.② 19.④ 20.③
21.③ 22.⑤ 23.② 24.⑤ 25.② 26.⑤ 27.① 28.① 29.③ 30.④
31.④ 32.③ 33.② 34.① 35.④ 36.② 37.② 38.② 39.② 40.③
41.④ 42.④ 43.⑤ 44.⑤ 45.② 46.④ 47.⑤ 48.② 49.④ 50.②
51.① 52.④ 53.④ 54.③ 55.④ 56.③ 57.② 58.① 59.⑤ 60.①

[1-6] 듣기

1.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사막과 사막화의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막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하자선 취지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유엔은 이 대로 가면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란 건조 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지 황폐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과도한 경작으로 땅을 혹사시키거나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을 파괴하는 인간의 잘못된 활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막화는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심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만, 중동이나 호주, 중국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막화의 피해는 눈에 떨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생산력을 잃은 토지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되고 농경이 불가능해지죠. 이것은 식량 생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식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동 지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런 식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화 과정을 거쳐서 식수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사막화가 인류에게 주는 위협에 대해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이다. 이 학생은 먼저 사막화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사막화의 발생 원인, 사막화가 심한 지역, 사막화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막 부분에서 사막화로 인한 피해 중의 하나인 식수 부족 현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막화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답] ⑤

2.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어제 수업 시간에 사람들의 반응 유형에 관한 선생님 얘기 어땠니? 난 참 재밌던데.

여학생: 응, 나도 재미있었어. 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방어 기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재미있었어.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분명하더라.

남학생: 넌 어떤 유형인데?

여학생: 난 반동형에 속하겠더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난 내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거든. 넌 어떤 유형이니?

남학생: 난 달콤한 레몬형인 것 같아.

여학생: 그래? 난 그 대목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 그게 어떤 유형이니?

남학생: 달콤한 레몬형은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유형이래. 내가 봐도 난 그런 것 같거든.

여학생: 그래? 음~ (휴지) 그럼 한번 말해 봐. 너 같은 달콤한 레몬형이 지하철을 타려고 뛰어가는데,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열차를 놓쳐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니?

남학생: 음, 나라면~

2.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두 학생은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들의 반응 유형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학생이 달콤한 레몬형에 해당한다고 하자 여학생은 그 유형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그게 어떤 유형인지 묻고 있다. 남학생은 ‘달콤한 레몬형은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해 준다. 여학생은 다시 지하철을 타려다가 열차를 놓쳐 버렸을 때 너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묻는다. 나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달콤한 레몬형의 특징이라고 했기에, 남학생은 열차를 놓친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것이다. ‘차라리 잘 됐다며 음료수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나쁜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④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은 나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일 뿐,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3. 이번에는 라디오극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효과음 (바람소리 쉬익~)

해설: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에 한 시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나태한 자신을 벗어 버리려 사막에 왔던 시인. 그러나 지금은 지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낙타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시인: (정신 차리며) 누구신지?

낙타풀: 전 낙타풀이에요.

시인: 어디 있나요? 모습을 보여 주세요.

해설: 시인은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덩굴풀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인: 아! 놀랍군. 난 이 사막엔 생명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정말 반가워.

낙타풀: 아저씨는 뭐하시는 분이세요?

시인: 난 시인이란다. 내가 사는 곳에선 유명한 사람이지. 마음속에 스민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섬세한 언어에 담는 일을 해. 네가 하는 일도 좀 얘기해 줄래?

낙타풀: 정말 멋있군요. 음, 제가 하는 일은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을 적실 빗물도 거의 없지만, 전 이 사막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가시가 덮인 우리 몸도 사막의 기후를 견뎌 내기 위한 거죠. 혼한 일은 아니지만 길을 잃고 쓰러진 나그네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요. 전 그들이 다 제 길을 찾았으면 해요. 참, 굶주린 낙타들에겐 우리들이 양식이 되기도 하죠. 낙타들이 저혈 보고 반가운 콧소리를 터뜨릴 땐 우리들 마음은 무척 따뜻해지고 행복해 진답니다.

시인: 낙타풀아! 너는~

3. 비판적 사고(대상의 특성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낙타풀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막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안다고 볼 수 있고, 시인처럼 길을 잃고

쓰러진 나그네들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격려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친절
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굶주린 낙타들에게 양식이 되어 줄 때 행복해진
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낙타
풀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4.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그림을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는 왜 막힐까요? 사고도 공사도 없는데, 유독 정체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차가 많아서 정체가 생긴다고 생각하
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론에서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자
동차 무리와 새그의 관계죠.

여기 그림을 보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무리가 보이죠. 상대적으로
느린 차를 선두로 자동차가 무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곳이 바로 새그입니다. 새그란 도로의 기울기가 변해서 오목해진 지점
으로, 변화된 정도가 미미해서 운전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을 계속 보시죠. 여기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 무리가
새그에 직면했다고 가정해 보죠. 선두 차의 운전자는 도로 기울기의 변화를 인식하
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더 밟지는 않습니다. 결국 달리던 속도에서 시속 3~4킬로
미터 정도 속도가 떨어지고, 그럴 경우, 뒤따르는 차는 선두 차가 감속한 것으로 알
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는 앞 차에 비해 더 감소합니다. 이때 그 다음 차는 앞 차
에 비해 조금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겠죠. 이렇게 되면 이 자동차 무리의 맨 뒤
차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까지 속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로 달리는 자동차 무리가 접근합니다. 이 무리의 선두 차와 앞서 가던 무리의 맨
뒤차가 만날 경우, 정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그, 즉 도로의 기울기가
변해 오목해진 지점 때문에 도로 정체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여러 개의 자동차 무리가 있습니다. <보기> 중, 앞선 무리의 선두 차의 운전자가
도로 기울기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때, 새그에 의해 교통 정체가 생기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4.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강연 내용은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인 ‘새그
현상’에 대한 것인데, 새그는 도로의 기울기가 변해서 오목해진 지점으로서, 이 지
점 때문에 앞서 가던 차의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면 뒤따르던 차들이
점점 더 감속하게 되어 도로 정체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원리를

<보기>에 적용해 보자. 주행 중 선두 차의 운전자가 도로 기울기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게 됨으로써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야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선 ㄴ처럼 내리막길이 끝나고 평탄한 길로 접어들 때 속도가 줄어들어 정체가 일어나며, 다음으로 ㄷ처럼 오르막길의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질 때 속도가 줄어들어 정체가 일어난다. [답] ③

[오답피하기] ㄱ처럼 내리막길의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므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ㄷ처럼 오르막길이 끝나고 평탄한 길로 접어드는 경우에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므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5-6] 이번에는 음악 감상법에 대한 대답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클래식 음악 감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답자(남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여자): 클래식 음악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 클래식을 감상하려고 해도 어떤 순서로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바흐와 같은 고전 시대의 음악부터 출발해야겠지요?

대답자(남자): 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편안한 음악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악이든 기악이든 상관없겠지요. 그러다 다른 분야의 음악으로 감상의 폭을 넓히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시대를 구별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리다 보면 클래식에 대한 조예도 깊어지고 느낌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느낌을 갖고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가 클래식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여자): 그렇군요. 가사가 있는 대중가요와는 달리 클래식은 가사가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알아듣기 어려워서, 어떤 점을 중시해 감상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요?

대답자(남자): 헛헛(가볍게 웃음).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편하고 선율이 아름다운 곡을 통해 친근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래식 음악에 좀 더 익숙해지면 협주곡이나 교향곡처럼 제법 규모가 큰 음악도 감상할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여러 악기가 내는 독특한 음색도 느껴 보면서 감상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가야겠지요.

진행자(여자): 아! 그렇군요. 최근에 모차르트의 음반을 사서 들어봤는데요, 예전

에 들었을 때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답자(남자): 음악을 듣는 상황이 바뀌어 그럴 수 있고, 연주자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작품을 놓고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감상하는 것이 좀 더 높은 단계의 감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주자나 지휘자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작들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면 클래식 음악 감상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 보는 것도 감상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앞에서 말한 클래식 감상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여자): 그렇군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5.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대답자(남자)는 클래식 음악 감상 방법에 대해 묻는 진행자(여자)의 질문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듣기 편한 음악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만의 느낌을 갖고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대답을 듣고 난 뒤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느낌을 가지고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시할 것이다. [답] ⑤

6.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진행자는 대답의 앞부분에서 클래식 음악을 어떤 순서로 감상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서, 구체적으로 고전 시대의 음악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내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최근 모차르트 음반을 사서 들어봤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의 느낌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그렇군요’ 하며 맞장구를 칠 뿐,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하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일화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7-14] 쓰기, 어휘·어법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주어진 그래프 중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인간의 성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인간의 성취도가 마감 시간에 가까울수록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중간 마감 시간을 설정하여 인간의 성취도가 변화하는 모습과 최종 마감 시한만을 설정했을 때 나타난 인간의 성취도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두 그래프에서 중간 마감을 설정한 경우에 중간 단계는 물론 최종 단계에서도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분석의 내용을 ‘효과적인 공부’에 적용한다면 α 과 같이 공부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를 나누는 방식 즉,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각각의 마감 시한을 설정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또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 모두에서 α 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공부의 성취도 차이 즉, 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도 도출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ㄱ. 두 그래프로부터 ‘효과적인 공부’를 꾸준한 노력과 연결시키기 어렵다. 그래프는 꾸준한 노력을 변수로 하고 있지 않고, 마감 시간과 성취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노력이 핵심 변수라면 ‘마감 시한’을 설정하는 그래프는 도출될 수 없다. ㄴ. 휴식은 그래프의 변수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언급할 수 없다.

8. 추론적 사고(글의 주제 파악을 통한 이어 쓰기)

정답해설 : <보기>는 학교 급식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나타나는 불편함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어질 내용은 이러한 불편함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급식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급식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사항을 언급한 ①, 급식실의 협소함으로 인해 학생이 받은 피해를 언급한 ②, 급식 시설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개선의 효과를 언급한 ③, 급식실의 협소함으로 인해 식사를 늦게 해서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함을 언급한 ⑤는 각각 이어 쓸 내용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도서관의 자리가 부족함을 건의하는 것은 건의문의 서두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④

9. 추론적 사고(내용 파악을 통한 뒷받침 자료의 확인)

정답해설 : 주어진 선택지에서 ①은 II의 1에, ②는 II의 2에, ③은 III의 2에, ⑤는 II의 3에 해당하는 자료로 각각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국제 교류의 유형과 국가별 선호도의 상관관계는 제시된 개요의 내용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④

10. 사실적 사고(주제의 이해)

정답해설 : 개요의 내용은 ‘청소년 국제 교류의 필요성 → 청소년 국제 교류의 문제점 →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주제 의식은 청소년 국제 교류의 활성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문장은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강구 및 제도 정비, 즉 청소년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그 필요성을 강조한 ⑤가 된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재정 지원, 민간 지원 시스템은 모두 구체적인 해결책 방안이므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가 되기 어렵다. ③ 국제화 시대의 인재 양성은 개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청소년들의 의식 전환은 개요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1. 창의적 사고(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생성)

정답해설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지향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므로 ②는 제외된다. ①, ③, ④, ⑤ 중에서 사물의 현상이나 속성을 뒤집는 ‘거꾸로 생각하기’의 발상이 담긴 것은 ③이다 “작은 것이 더 큼니다.”라는 진술은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술로 ‘거꾸로 생각하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큰 상처’와 ‘작은 상처’의 비교를 통해서 작은 상처인 헌혈이 큰 상처 즉, 다른 사람이 겪는 더 커다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지향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답] ③

12. 추론적 사고(퇴고하기)

정답해설 : ㉞은 솔수염하늘소의 특성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문장이다.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방지책 중 솔수염하늘소의 방제를 진술하고 있는 앞 문장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셋째 문장과 넷째 문장은 모두 솔수염하늘소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과정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위치하면 그 방제책이 삽입되게 되어 글의 진술이 어색해진다. [답] ③

13. 추론적 사고(어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조건] 1.로부터 ㉠과 ㉡은 -답²-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건] 2에서 -답¹-은 단어보다 더 큰 단위에 결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제시된 단위가 ‘싸움에서 이긴 장군’으로 이는 명사 ‘장군’과 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관형사절 + 명사]+ -답다’의 구조를 ㉢과 ㉣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예]에서 ㉠, ㉡, ㉢이다. 그리고 [조건] 3.에서 -답¹-은 자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역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¹-에는 ㉠, ㉡, ㉢이 -답²-에는 ㉢, ㉣이 해당된다. [답] ④

14. 추론적 사고(어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동일한 대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①의 ‘저희’이다. 가.에 사용된 ‘저희’는 1인칭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나.에 사용된 ‘저희’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답]
①

[15~19] 현대시

(가) 신경림 ‘고향길’

작품해제 : 화자는 가난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의 현실 속에서 이제 고향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에 ‘쫓기듯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공간으로 변해 버렸다. 눈물을 머금고 이방인처럼 고향을 등져야만 하는 화자의 고향 상실감과 그로 인한 비애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삶의 비애

(나) 김상옥, ‘사향(思鄉)’

작품해제 : 이 작품은 3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정경을 회상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고향에 대한 정경을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아울러 고향 마을 사람들과 마을 전체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에 회상에서 벗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 박재삼, ‘추억에서’

작품해제 :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고난과 한스러운 삶을 회상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골 생활과 함께 진주 장터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모습을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한스러운 삶을 살다간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15.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비해, (다)의 화자는 고향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한과 고생이 담긴 공간으로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 등장하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그네 되어 떠난다는 데서 고향에 정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눈 감고 회상하는 아름다운 고향이 나타나 있다. ③ 진주 장터와 남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④ (나)는 고향을 회상하고 있

을 뿐이지만, (가)에서는 고향에 찾아가게 되면 어떨 것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16.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내 살던 집 뒷마루’는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역시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유랑하는 삶의 지향점을 뜻하고, ㉡은 어머니의 고난스러운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17. 추론적 사고(작품을 바꾸어 쓰기 위한 구상)

정답해설 :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첫 부분의 ‘눈을 감는다’에서 현재 상황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마지막에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이 도로 애것하다’에서는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는 직접 회상하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나)를 (다)로 개작할 경우에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현재 상황을 부여해야 한다. [답] ②

18.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나)는 현대 시조로 음수율이나 율격 구조는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현재적인 감수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1연에서 ‘풀밭길 - 개울물 - 초집’의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2연에서의 ‘진달래 - 저녁노을 - 꽃지짐’의 붉은 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 3연에서의 ‘멧남새 - 봄을 씹는 마을’이라는 미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에 의해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의미 구조를 배치함으로써 율격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미학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글자 수 제한과 율격적 특징은 기존의 시조의 특성이다. ④ 사투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기보다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⑤ 3장 구조는 특별히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 비판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과 고통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나가 밤이슬을 맞으며 돌아오시곤 했던 어머니의 고생과 자식들을 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D가 된다. 자식들을 위해 진주 장터로 생

어물 장사를 하러 신새벽이나 밤에 오고가고 하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상황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④

[20-23] 사회, '소비 사회에서 공간 텍스트를 읽는 과정'

지문해설 : 쇼윈도는 현대의 공간 텍스트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소비 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인 셈이다. 소비자는 공간 텍스트에 놓여 있는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상품을 관찰하며, 그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고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그 상품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제] 공간 텍스트를 통한 소비 행위의 의의

20.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여부 확인)

정답해설 :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로 소비를 이루어 내는 공간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소비자를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책의 표지나 목차 이야기는 쇼윈도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책을 읽는 능력과 공간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의 관련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공간으로 입문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소비자는 관심, 관찰, 해독,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④ 마네킹은 공간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소비자는 마네킹이 걸치고 있는 옷, 장신구 등을 보며 이것을 생산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의미를 부여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1. 사실적 사고(설명 방법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통해 소비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간 텍스트를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나누고 있다. ② 공간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라며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옷 가게의 쇼윈도에 마네킹이 서 있는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첫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기호학의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22. 추론적 사고(핵심 어구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한 후, 공간 텍스트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공간 텍스트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고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공연 예술의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간 텍스트는 생산자, 혹은 판매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②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장신구를 한 마네킹을 쇼윈도에 세워 두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 텍스트를 이용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③ 소비자와 생산자는 공간 텍스트에서 서로 연결된다. ④ 공간 텍스트는 쇼윈도처럼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게 된다.

23. 어휘 어법의 이해(중요 어휘의 이해)

정답해설 : ‘이야기’는 <보기>에서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와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 두 단어가 <보기>에 제시된 여러 개의 뜻 중에서 어떤 의미로 문맥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이 적절하다. ㉡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 가장 가깝다. [답] ②

[24-28] 고전소설, 김만중, ‘구운몽’

작품해제 : ‘구운몽’은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의 근심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우리나라 양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유교, 도교, 불교 등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하룻밤의 꿈 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맛보고 깨어나,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껴 불법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양소유가 꿈에 용왕의 딸인 백능파를 만나게 된 뒤 용궁에 초대되어 갔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다.

[주제] 인생무상에의 깨달음과 불법에의 귀의

24.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양 원수가 용궁에 초대되어 대접을 받는 장면과 남악 형산을 구경하는 장면, 꿈에서 깨어난 뒤에 장졸들에게 꿈의 내용을 물은 뒤에 백룡담에 가서 물을 마시는 장면으로 다양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크게 세 차례 바뀐다. ② 양 원수가 용왕의 초대를 받고 백룡담의 물을 마시고 병든 군병에게 먹이는 등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용궁과 남

악 형산의 공간이 등장한다. ④ 용왕과 양 원수와의 대화나 노승과 양 원수의 대화가 격조가 있다.

25.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특징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현실’과 ‘꿈’과 ‘꿈속 꿈’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에서 ‘현실’과 ‘꿈속 꿈’의 공간이 남악 형산으로 일치하게 되어 ‘꿈속 꿈’이 다시 ‘현실’의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실 층위가 아닌 용궁이 등장하고 있다. ③ ‘꿈속 꿈’은 욕망을 이루는 부분으로 현실적 욕망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꿈속 꿈’의 공간은 백능파를 만나는 공간이다. ⑤ ‘꿈속 꿈’에서 ‘꿈’으로 간다는 점에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유의전’에서는 전단강에 사는 용왕의 아우가 경하강 용왕의 아들과 싸워서 동정호 용왕의 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구운몽’은 양소유가 남해 태자와 싸워서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인 백능파를 구해주게 된다. [답] ⑤

27.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에 담겨 있는 양소유의 심정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가 있지만 아직 공적을 이루지 못해 물러나서 한가하게 즐길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으면 ①이 된다. 초당의 자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귀거래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있을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풍류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③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④ 우국지정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⑤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하고 있다.

28. 어휘·어법의 이해(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양 원수가 장졸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가고 묻자 모든 장졸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대답하여 말하는 모습을 이구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음을 이르는 말로 이 부분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③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④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29-32] 예술,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이라는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림의 구상 동기와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그림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 준 후, 구성과 색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설명함에 있어 그림의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제]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구성과 색채상의 특징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마티스의 '모로코 사람들'은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어 그림에 그려진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했다. 특히 왼쪽 하단의 그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즉, 흰 선과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터번을 두르고 기도하는 아랍인들이라는 해석과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4행과 5행에서 색 자체는 화려하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② 이 그림은 모로코 여행 직후가 아닌 4~5년 뒤에 그려졌으며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추상적 형태에 가깝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했다. ④ 4문단의 8행에서 마티스는 화면이 밝은 것은 물감 색의 생생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3문단의 첫 문장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30. 추론적 사고(새로운 자료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일반적인 미술 비평의 세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제시되고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왼쪽 하단의 그림을 구체적인 색과 형태로 제시한 ㉠과, 화면 오른쪽 아래쪽의 색과 형태에 대한 진술인 ㉡이 해당된다. 다음 단계인 해석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 했다. ㉢은 바로 ㉠에 대한 해석이며, ㉣은 황색의 원과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며, 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진술이기에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다고 했다. ㉤은 앞에서 설명한 마티스의 그림에 대한 특징들을 토대로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최종 평가를 내리는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31.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란 마티스가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켰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의 색으로 변모를 시켰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4문단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마티스 스스로가 밝혔듯이 다른 색과의 조화와 어울림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화란 흰색과의 대비도 아니며, 다른 물감과의 혼합도 아니고 주변 색과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답] ④

32. 비판적 사고(새로운 작품에의 적용)

정답해설 : 마티스 그림의 경향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무엇을 그렸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렸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마티스 그림의 전체적인 특징인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한 마티스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비록 검은 색을 썼지만 색의 조화를 통해 남국의 밝은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진술은 동심원의 형태라는 기하학적 특징과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별의 느낌을 주도록 했다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마티스 그림은 추상적 형태라 했으므로 사진과 같은 세밀함은 잘 못된 것이다. ②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해석의 여지를 없앤 것은 마티스 그림의 경향이 아니다. ④ 마티스의 그림에서는 인상 깊은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의 조화를 중시했다. ⑤ 안정된 구도와 차분한 색채가 매력적이기는 하나 이 역시 추상적인 형태를 띤 그림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33-36] 기술,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의 성격과 효과'

지문해설 :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에서 불량품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6 시그마 계획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시그마란 품질의 평균값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이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표준 편차의 표시 기호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시그마를 축소하기 위해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시스템 개선을 벌이게 된다. 글쓴이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은 제품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 왔다고 설명한다.

[주제] 6 시그마 계획의 개념 및 특성과 제품 생산에서의 적용 효과

33. 추론적 사고(내용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구성)

정답해설 :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문에는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제품은 오차를 갖게 마련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오차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특성값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이 공정의 목표값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는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평균값보다 작은 정도와 큰 정도의 절대값이 서로 일치하고 그

개수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로 지문에 나타난 그래프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그래서 지문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②

34. 어휘 · 어법의 이해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일을 해결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고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다.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 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 ㉣, ㉤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35. 추론적 사고(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현재 품질 상태를 측정해야 불량품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 ‘나. 측정 단계’에 해당한다. ㉡는 불량품의 개선을 위한 공정 교체를 의미하므로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 ‘라. 개선 단계’에 해당한다. [답] ④

36. 추론적 사고(자료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시그마의 수준을 바탕으로 이를 면적, 비용, 시간, 거리로서 나타내고 있다. 시그마는 제품의 평균에서 떨어진 산포도를 측정하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기호이다. 지문에서 시그마 앞의 배수가 크면 시그마가 작아 불량품이 적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시그마 앞의 배수가 작으면 시그마가 커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그마 앞에 배수들이 각각 3, 4, 5, 6으로 제시된 <보기>는 배수가 커질수록 불량품의 산출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을 면적, 비용, 시간, 거리의 단위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는 시그마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불량률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37-42] 문학 복합 [고전시가+고전수필]

(가) 안민영, <매화사>

작품해제 : 모두 8수로 된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추운 계절에도 능히 꽃을 피우는 매화의 고아한 절개를 그리고 있다. 필자는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윽한 향으로 인해 느껴지는 운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안민영의 시조 작품 가운데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며 매화가 상징하는 지조, 절개의 의미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멋과 향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나) 송순, <면앙정가>

작품해제 : 이 작품은 강호가도를 확립한 노래이다. 정극인의 '상춘곡'을 이어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문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흥취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의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고유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주제]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면양정의 경치와 이를 즐기는 흥취

(다)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작품해제 : 묘지명에 해당하는 잡문이지만 수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글이다. 덕보 홍대용과의 교유에 따른 개인적인 체험과 일화를 통해 그의 비범한 재주를 찬미하고 있는 글이다. 몇 일화를 통해 홍대용의 인물됨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대용의 평소의 생활 자세와 그가 지닌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덕보 홍대용의 인물됨과 비범한 재주에 대한 예찬

37.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의 필자는 덕보 홍대용이 지닌 비범한 능력과 인물됨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결국 주어진 세 작품 모두에서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38.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황혼월'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보조 관념이 아니다. 황혼 속의 달이라는 자연 정취와 연관되는 본 관념으로서의 시어이다. 시 전체에 걸쳐서 단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시어이다. ③ 화자는 매화의 상징적 속성을 들어 '우아함'과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두견화는 진달래이다. 화자는 철쭉이나 진달래의 속됨과 다른 매화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눈'은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눈을 이기는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소재로 '눈'을 활용하고 있다.

39.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정답해설 : 동영상이라는 다른 갈래로 전환하여 보는 문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작품의 정황과 연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가)의 분위기는 우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 (나)의 분위기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의 흥취이다. 그런 만큼 동영상에서 (가)를 '구슬픔'이라는 분위기와 연관하여 영상화한다면, 이는 주어진 작품의 분위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잔 잡아 권하는 구절과, (나)에서 남여를 재촉해 타는 구절과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가)에서는 백설 양춘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에서는 시상 전개와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달’을 통해, (나)에서는 ‘사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동각’의 언급을 통해 한옥의 뜰이 연상되며, (나)에서는 남여를 타고 길을 통해 도달한 ‘백척 난간’의 상황을 통해 주변 풍경의 조망이 가능한 곳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

40.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㉔은 아름다운 가을 산의 풍경과 모습이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흥에 겨운 피리소리와 연관해 볼 때, 어떤 적막감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황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② ‘긴 조으름’이라는 시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④ 청각 심상으로서의 ‘어적’과 시각 심상으로서의 ‘달’이 동시에 드러난다. ⑤ ‘가는 곳곳마다 불만한 경치로구나’라며 감회를 집약하고 있다.

41.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㉔는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화를 완상하는 화자의 풍류적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된 소재이다. 반면 ㉕는 그 이후의 문장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된다. 곧,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는’ 수양의 도구로서 거문고가 사용되는 것이다. [답] ④

42.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덕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평소의 생활 자세인 겸손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육비, 엄성, 반정균과 같은 중국의 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홍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전체적으로 여러 일화와 예를 동원하여 덕보의 인물됨을 말하고 있다.

[43-46] 언어, 머릿속 사전의 조직에 나타난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머릿속의 사전에 낱말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연상 실험과 실어증 환자에게 대한 실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사전에서의 낱말 조직과 비교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체계적인 정리로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머릿속 사전의 조직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

4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인 단어 연상 실험에서

자극어에 대한 반응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하다고 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첫째 항목에서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② 단어 연상 실험에서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③ 5문단의 둘째 항목에서 정리하였듯이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했다. ④ 4문단의 실어증 환자에게 대한 실험을 통해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있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44.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정답해설 : A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 사전의 조직 방식은 사전과는 달리 한글 자모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4 문단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 했으므로 사전에서처럼 한글의 자모 순서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⑤에서 ‘장어, 쟁어, 정어, 정우’는 모음의 근접성이 있는 단어끼리 모아 놓은 것이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문’과 ‘바람’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② ‘곤경’과 ‘장애’는 의미가 유사하기에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③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동시에 떠올라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는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④ ‘현미경’과 ‘망원경’은 서로 수준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ㄱ의 ‘고무’와 ‘줄’은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ㄴ의 ‘잠자리’와 ‘채’ 역시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기에 배열적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ㄷ의 ‘두껍다’와 ‘얇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ㄹ의 ‘남자’와 ‘사람’은 하위어와 상위어의 관계이기에 상위적 연결 관계의 단어이다. ㅁ의 ‘북쪽’과 ‘남쪽’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에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답] ②

46.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오리가리’는 의미상 ‘오리³’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머릿속 사전의 방식대로 정리한다면 두 낱말은 가까운 곳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머릿속 사전은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에 ‘오리가리’가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머릿속 사전은 사전에서처럼 한글 자모 순서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나 주제를 중심으로 단어들 연결되어 있다. ② 두 단어는 비록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기에 ‘오리’는 ‘동물’의 단어들과 같이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머릿속 사전은 일정한 주제나 의미상 연관이 있는 단어들끼리 묶이기 때문이다. ③ ‘오리발’, ‘오리걸음’의 ‘오리’는 ‘오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머릿속 사전에는 이 단어들 어떤 식으로든 묶여야 자연스럽다. ⑤ 머릿속 사전에는 유사한 단어들끼리 묶인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나,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끼리 묶인 등위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47-51] 인문 ‘개인적 선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문해설 : 살면서 부딪히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가 정당한 도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따진 글이다. 다양한 삶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는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정당성과의 미묘한 함수 관계가 노출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예를 동원하여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의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평주의자의 입장을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누어 그 대처 양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정당성

47.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택이 과연 정당한 도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결국 이 글은 다양한 삶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는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을 그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 [답] ⑤

48. 논리적 사고(추론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의 판단 내용과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는 두 판단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만큼 ㉠의 추론 과정에는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놓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가 전제되어 있다. 곧,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놓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 → 철수는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 →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는 추론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 [답] ②

49. 추론적 사고(이유 및 근거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순이는 친할

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이가 온건한 공평주의자라면 일단은 상황적 조건의 동일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상황이 동일하다면 개인적 선호에 따라,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면 도덕적 흐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순이는 간병할 사람이 없는 친할머니를 간호함으로써 도덕적 흐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답] ④

50. 비판적 이해(반응의 타당성과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파악한 후 본문과 더불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된다. <보기>는 딜레마에 처한 왕이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왕의 직분은 ‘도덕적 판단’을, ‘아버지와 더불어 도망함’은 ‘개인적 선호’를 의미한다. 본문에 나오듯이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적 선호에 대한 완전한 배제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만큼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이는 일에 대해 지지를 보낼 것은 당연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었다면 왕은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질 않을 것이다. ③ 공평주의자들이 갖는 관심은 도덕적 정당성의 여부인 만큼, 왕이 지위를 버리느냐의 여부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라면 왕의 아버지를 구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질 않을 것이다. ⑤ 민수의 행동은 ‘상황의 동일성’에서 나온 개인적 선호이므로 상황의 동일성과 관계없이 나타난 왕의 금지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51. 어휘 어법의 이해(적절한 어휘의 선택)

정답해설 : 주어진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여기에 쓰인 ‘특별한’은 ‘남다른’의 의미이다. 곧, ‘친분에 있어 타인과 구별하여 이루어지는’의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각별(格別)한’, ‘자별(自別)한’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답] ①

[52-56] 현대소설, 이문열, ‘금시조’

작품해제 : 어려서 부모를 여윈 '고죽'은 서예가인 석담 선생에게 맡겨진다. 석담은 '예(藝)'보다 '도(道)'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도(道)보다 '예(藝)'가 더 센 고죽의 작품 세계를 못마땅해 한다. 고죽은 스승과는 달리 보편적 원리로서의 '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서예 역시 독특하게 추구되어야 할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스승과는 다른 독자적 세계를 추구해 간다. 중년의 나이에 스승과 대립하고 스승 곁을 떠나기도 했던 고죽은, 스승이 죽은 후에야 스승이 자기를 총애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고죽은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작품을 회수하여 불태우면서, 그 불꽃을 통해 고죽은 자기 부정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금시조가 날아오르는 것을 확인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예술에서 작가의 정신 세계를 담아내려 했던 스승 '석담'과, 서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제자

‘고죽’ 간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제] 한 예술가의 자기 부정의 예술혼

52.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여기 제시된 지문은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인 ‘고죽’과 스승인 ‘석담’의 첨예한 갈등을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이 상대방의 의견을 공박하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30년 후로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답] ④

53. 추론적 사고(세부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㉞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㉞에 담겨 있는 고죽의 심리는 원망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답] ④

[오답피하기] ㉠의 앞에 나온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로 볼 때, 스승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라는 내용이 드높은 예술의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 전후 상황을 통해 ‘석담’이 ‘고죽’을 나무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의 앞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 ‘글씨 한 자에 쌀 뒷박’ 얘기가 채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그’가 초현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고죽’의 기대감이 나타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4.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에서 ‘고죽’은 서예 작품을 ‘문자로 된 나의 깎데기’로 비유하며, 그것이 낯모르는 후인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보기>를 통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근거로 ㉠에 나타난 ‘고죽’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였다는 것은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도’와 ‘현묘함’이 서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정, 도둑, 장인, 야공에게도 있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서예가 실용성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 드높은 경지로 후세

에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어떤 경지를 설정했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55.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고죽’은 젊었을 때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스승에 대해 반대하고 스승 곁을 떠났지만, 스승이 죽은 후엔 오히려 스승을 그리워하며 나이가 들수록 스승이 서예 기법의 가치를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고죽’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때,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 작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고죽’과 ‘석담’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효용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고죽’이 젊었을 때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스승과 결별까지 했지만 결국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작가는 서예가인 ‘고죽’과 그의 스승인 ‘석담’의 만남과 헤어짐을 극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⑤ ‘석담’과 ‘고죽’의 고뇌를 통해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의 정신적 고뇌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56. 어휘·어법의 이해(속담의 이해와 활용)

정답해설 : 초헌이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도 모르면서 초서와 전서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답지 않게 정서(正書)로만 3년을 채웠고, 7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살았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며 연마하는 초헌과 달리 ‘요즈음 젊은이들’은 실력도 연마하기 전에 자기 실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실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은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이다.

[오답피하기] ① ‘성미가 급하여 참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뜻이다. ② ‘아주 무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무식한 사람이라도 유식한 사람과 오래 섞이면 다소 견문이 트인다.’는 뜻이다. ⑤ ‘멧모르고 겁도 없이 함부로 덤빈다.’는 뜻이다.

[57-60] 과학,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악기의 기준음을 구한 샤이블러의 실험’

지문해설 : 이 글은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악기의 기준음을 구한 샤이블러의 실험을 다룬 내용이다. 과거에는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정확히 모른 채 악기를 조율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샤이블러는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이용하여 기준음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제 각각이던 기준음들을 하나의 기준음으로 통일한다는 의의를 지니게 되는데, 이

는 곧 샤이블러의 업적인 셈이다.

[주제] 악기의 기준음을 구한 샤이블러의 실험의 의의

57. 추론적 사고(대상의 업적 파악)

정답해설 : 샤이블러의 실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험에 담긴 의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기존의 이론에, 소리굽쇠의 진동수의 차이와 음의 관계를 이용하여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았던 샤이블러의 연구가 합쳐지면서 조율의 기준음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샤이블러의 연구 결과가 가져온 긍정적인 의미와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그의 업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낼 수 있다. [답] ②

58.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보기>에서 제시하는 사실들 중에 옳은 것만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발문을 통해 1번 소리굽쇠가 200Hz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ㄱ에서 언급된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의 진동수의 절반인 100Hz의 진동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ㄱ은 샤이블러의 실험과 그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진동수를 가질 때, 샤이블러의 이론에 따르면, 이는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소리굽쇠는 100Hz의 진동수를 갖게 되어 처음 소리굽쇠의 진동수와 100Hz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③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25개이다. 소리굽쇠 간의 진동수의 차이는 4Hz이기 때문이다.

59. 추론적 사고(구체적 현상에 대한 추리)

정답해설 : 샤이블러 실험의 결과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음으로 ‘슈투트가르트 피치’를 만들어 두루 사용하게끔 하였다.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이것이 도입된 곳에서는 정확히 진동수가 440Hz가 되는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답] ⑤

60. 어휘 어법(다의어와 반의어)

정답해설 : ㉠, ㉡, ㉢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각 의미마다 반의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약하다’가 ‘힘이 정도가 작다’라는 의미일 때는 ‘세다’와 반의 관계에 놓이지만, ‘단단하지 못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단단하다’와 반의 관계에 놓인다. ‘젊다’는 ‘나이가 한창 때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늙다’와 반의 관계가 되지만, ‘젊다’와 ‘어리다’는 반의 관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좋다’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는 의미로 쓰이면 ‘싫다’와 반의 관계가 성립하고,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훌륭하여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나쁘다’와 반의 관계가 된다. ③‘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면 ‘빼앗다’와 반의 관계이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감정 따위를 보내다.’의 의미로 쓰이면 ‘받다’와 반의 관계가 된다. ④‘굽다’는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의 의미로 쓰이면 ‘밟다’와 반의 관계이고, ‘만져 보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보드랍다.’의 의미일 때는 ‘거칠다’와 반의 관계가 된다. ⑤‘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밀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늦추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